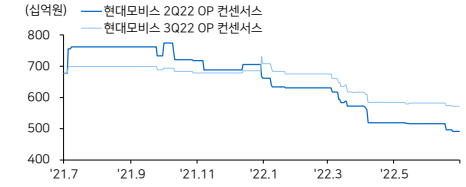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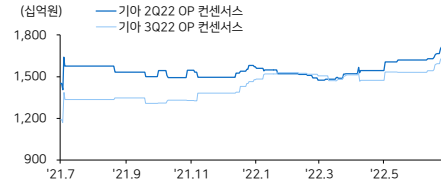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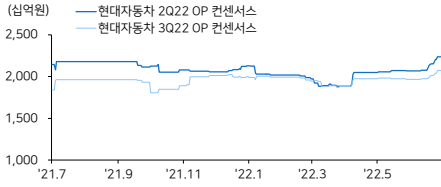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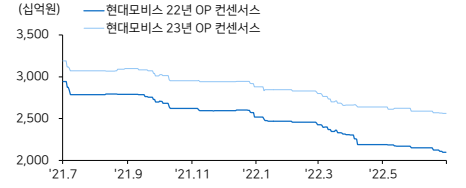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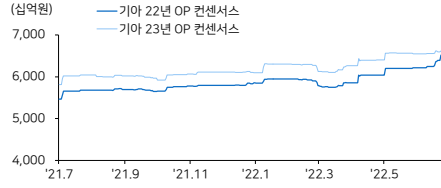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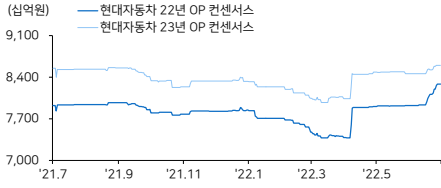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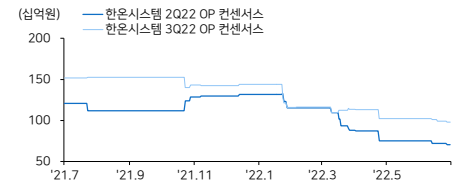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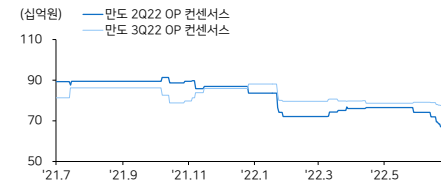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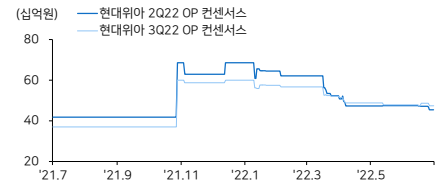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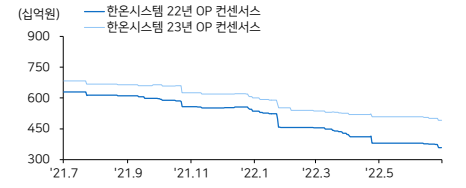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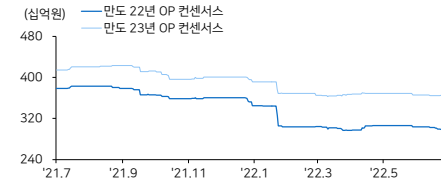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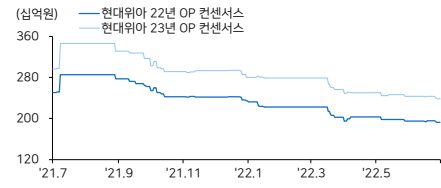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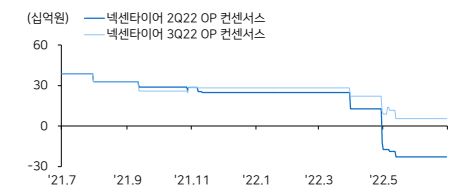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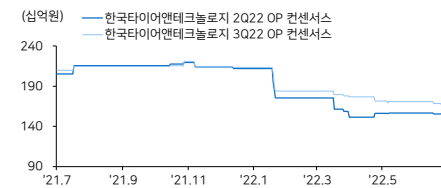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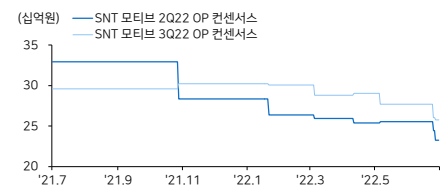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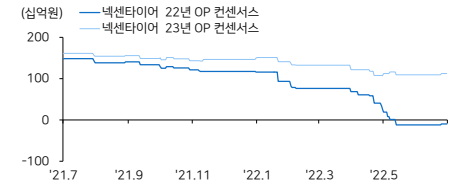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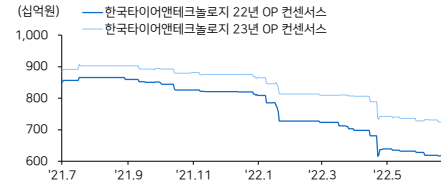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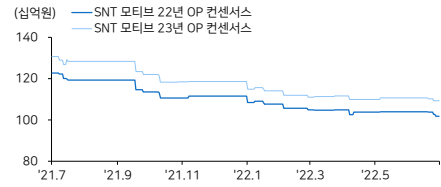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2025년까지 그룹 미래성장 국내 투자 63조 중 34조 분담" (연합인포맥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2025년까지 국내 63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중 34조원을 현대차가 분담할 계획. 전통화 전환에 21조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은 2030년 144만대까지 확대할 계획.
<https://bit.ly/3zoAYmZ>

중 바이두, 운전대 없고 값싼 자율자동차 '아폴로 RT6' 공개 (시타입스)

바이두가 최신행 자율주행 전기차 '아폴로(Apollo) RT6'를 공개, 로보택시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 이 모델은 필요에 따라 운전대를 떼거나 부착할 수 있고 가격은 대당 25만 위안(3만 7천달러, 우리돈 약 4천8백만 원)선.
<https://bit.ly/3PHuggZ>

Ford secured 60 GWh of battery supply to achieve production of 600,000 Evs (electrek)

포드는 내년 말까지 연간 60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60GWh의 배터리 공급을 확보했으며, LFP 배터리도 추가로 사용한다고 밝힘. 또한 2026년 말까지 200만대 이상의 EV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배터리 소싱전략을 발표.
<https://bit.ly/3cxFrF7>

Global manufacturers see chip shortage easing (Reuters)

현대차, 산업용로봇 업체 ABB, 냉동제 제조업체 Electrolux 등은 실적발표를 통해 반도체 부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힘. 칩 공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 타이탄한 에너지 시장 및 글로벌 인상 등 업계가 직면한 부담을 줄여줄 것.
<https://reut.rs/3v7ZlWK>

현대차그룹, 미국서 신사업 분야 5.6조원 추가 투자 (이코노믹리뷰)

현대차그룹은 향후 미국에서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분야에 5조6,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 현대차 분담 비중이나 세부 투자 계획, 투자 기간 등에 대해서는 공유되지 않음.
<https://bit.ly/3QoQdN9>

GM·포드, 미국서 '핸들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 신청 (한국경제)

자동차 제조업체 GM과 포드가 핸들처럼 사람이 조작할 장치 없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미국 규제당국에 신청. GM은 크루즈의 자율주행차 Origin 모델 운행을 신청했으며, 포드는 PAV 밴 운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
<https://bit.ly/3zo9Gw4>

BYD marches into Japan, home turf of Toyota and Honda (CNEV Post)

중국 자동차 회사 BYD가 자동차의 본고장 일본 시장에 진출할 예정. BYD Atto 3는 2023년 1월, Dolphin은 2023년 중반, Seal은 2023년 하반기에 출시 계획. BYD는 이미 일본 시장에서 전기 버스도 성공을 거둔 바 있음.
<https://bit.ly/3PQdDaN>

Deutsche Bank tells how they feel about Chinese EVs after test drives in Norway (CNEV Post)

Deutsche Bank는 노르웨이에서 중국산 EV (NIO ES8, XPeng P7 등) 모델을 시승. 실내의 디자인은 기존 OEM과 동등한 수준이며, 인포테인먼트 SW가 인상적이라는 반응.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편견만이 유일한 장애물.
<https://bit.ly/30s0RWz>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